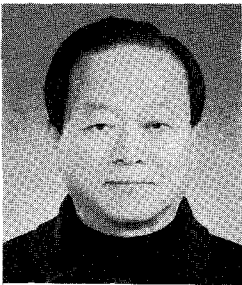


종계업계와 계열업체의 협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해로 승화되길...



이 종 길
(주)하림 고문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표현하지만 2003년 계미년(癸未年)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해는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용육계가 처음 들어온 때가 1964년도니까 벌써 40년이 되었고,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병 같은 것이 남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양계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상대방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상대와의 대화가 잘 될 리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 없으며,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난 한해의 경우를 돌이켜 살펴보자.

지난 2월부터 3월 초순까지 계육협회 회원사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55만수의 병아리를 렌더링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로 병아리 시세는 320원까지 상승하였고, 육계 가격도 1,500원으로 회복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4백여만수의 병아리를 렌더링 처리하여 8월과 9월의 육계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성수기 입추물량인데도 병아리 시세는 사상 최저의 바닥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도 병아리를 감축하여 병아리 시세도 제 값을 받고 닭값도 제 값을 받고 하소연하였으나 종계·부화업계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하림을 성토하는데 만 급급하였고 들은 체도 하지 않



았다. 결국 50원에도 팔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하였으나 그 여파로 8월과 9월의 시세는 상상외의 가격을 형성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0월말부터 2주간에 걸쳐서 100만수의 병아리를 렌더링 처리하여 12월초의 시세를 1,000원으로 회복시킨 것은 엇그제의 일이다. 당시에 시작할 때에도 처음의 약속과 같이 정확하게 주당 75만수씩의 병아리를 연말까지 계속해서 감축을 실시하자고 하였으며, 그대로만 실시하였다면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구정(설) 이후까지도 시세는 1,000원 이상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 해 였지만 서로가 협력하여 행동을 같이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놓고도 이행을 안 하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일부만 참여하고 외면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동참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왜 그렇게 많은지? 반대를 해야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참여를 못하면 미안해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문을 하고 싶다.

시세가 회복되면 동참하지 않는 자신에게도 분명 혜택이 돌아갈텐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병아리 값이 200원으로만 회복되어도 불만이 대단하고 닭값이 1,000원만 되어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시세가 폭락해서 전부가 망하고 나면 혼자서 독점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다. 혼란이 거듭되면 수입물량이 물밀 듯이 들어와 안방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하여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출하를 하면서 저절함을 삼켜야 하는지?

지나간 1년 7개월을 보람도 없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적자 투성이에서 살아온 삶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1998년초의 IMF사태 당시에도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가고, 사료 값이 400원을 육박하였으나 우리 양계인들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다른 축종에서는 엄청난 시련을 겪는 순간에도 무난하게 IMF를 극복한 저력도 발휘하지 않았는가?

잠깐 바깥 세상을 둘러보자. 작금의 세계 경제는 미국을 위시하여 동아시아와 유럽의 경기는 눈에 띄게 회복되어가고 있으며 EU에서는 현재의 15개 회원국과 가입 후보 10개국 총 25개의 회원국들이 합쳐서 EU의 단일 헌법제정에 착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하기 위한 모든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FTA협상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내의 경제사정은 수출부문에서는 일부 신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수시장은 갈수록 쪼그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시상 최고의 가게 빛 440조원, 가구당 부채 2,900만원, 가장 많은 생활비가 소요되는 40~50대 퇴출 직장인이 14만명에 달하며 카드 대란으로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양계인들은 서로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미년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체험하였다.

그리고 지난 6개월 간 지지부진하던 원종계 3사의 협상이 타결되어 9만 4천수로

합의가 된 것은 앞으로의 종계업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으며, 또 한가지의 큰 수확은 (주)하림과 한국원종이 사사로움을 초월하여 대국적인 차원에서 코브 GPS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 계미년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또, 2004년 갑신년의 종계업 안정화 방안은 앞으로는 전국의 종계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너무나 부정적이므로 당분간을 어려움이 예상되나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큰 어려움도 오히려 쉽게 해결이 가능하므로 상반기의 몇 개월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열업체와 종계업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프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충분히 터득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모두가 성숙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갑신년의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양계인의 자세로 거듭날 때 시련은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양계